

ECM 업그레이드, “이제는 통합 아키텍처로”



미네소타 에덴프레리에 소재한 스텔런트(www.stellent.com)는 최근 유니버설 콘텐츠 매니지먼트 7.0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하나의 공통 제품 아키텍처 내에서 문서 관리, WCM(웹 콘텐츠관리), 협업, 레코드 관리, DAM(디지털자산관리)을 통합하는 유일한 ECM(기업콘텐츠관리) 솔루션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들을 통합시킨 ECM 시스템을 활용한 최신 업그레이드 제품과 달리 이번에 내놓은 ECM 시스템 7.0 버전은 공통 GUI(Graphical User Interface)와 공통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단일 서버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지원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7.0 버전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능으로는 전자적, 물리적 레코드에 대한 보존 스케줄(Retention Schedule) 설정, 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레코드 관리를 위한 빌트인 지원(Built-In Support)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버전에 확장된 단순화된 워크플로 기능은 비전문 사용자가 콘텐츠 생성과 승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디렉토리 롤오버(Directory Rollover) 기능은 사용자가 다수의 디렉토리에서 각종 프로파일 및 기타 보안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확장 XML 기능은 인기 높은 XML 저작 툴인 코렐 엑스메탈(Corel Xmetal)과의 통합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서버와 기고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부과, 그리고 콘텐츠 소비자 내지 워크플로 참가자의 대한 무료 사용으로 가격 구조를 단순화시켰다.

7.0 버전이 지원하는 새로운 옵션으로는 대용량의 문서 이미징 및 DAM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우수워크플로 및 저장소 모듈, 그리고 DoD 5015.2-호환 레코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 관리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식스오스 소프트웨어(Xythos Software, www.xythos.com)는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서버 10g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사의 웹파일 인터넷(WebFile Internet)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를 확장시켜 포털을 통한 콘텐츠 접속 및 컨트롤에 대한 증가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번 확장으로 이뤄진 웹파일 클라이언트와 오라클 10g의 결합은 윈도 익스플로러 데스크톱 환경 내에서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포털 콘텐츠 관리 기능들을 직접 익스포지시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출판 및 관리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웹파일 클라이언트는 모든 윈도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웹DAV-지원 접속 컨트롤, 편집, 버저닝 (Versioning)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이 회사는 현재 이 같은 기능들을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서버 10g에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파일 동기화(Offline File Synchronization) 기능도 지원해 포털 컨트리뷰터(Portal Contributor)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트래벨링(Traveling) 또는 차단 요구까지 처리할 수 있다.

식스오스의 웹DAV-호환 웹파일 서버와 웹파일 클라이언트 제품들은 기업 사용자들이 어떠한 인터넷 위치에서도 손쉽게 정보를 검색,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파일 시스템 보안 기능을 증대시키면서 이메일 시스템에서의 태스크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관리를 솔루션 가격은 수량에 따라 사용자 당 1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이다.

스캔 & 캡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소재한 에비(Abbyy, www.abbyy.com)가 공급하는 파인리더 7.0(FineReader 7.0) 코퍼레이트 에디션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다. 이 제품은 향상된 레코지니션 애큐러시(Recognition Accuracy), 보다 우수한 PDF 변환, 그리고 용이한 네트워크 구축 등 몇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어 인기가 높다.

에비 측은 “OCR 소프트웨어는 정적인 하드카피 문서를 편집 가능하면서 공유 가능한 전자 파일로 바꾸어 준다”며 “특히 최신 출시

TRANSFORM 170 OCTOBER 2003

버전인 7.0은 이전에 출시된 파인리더보다 25% 높은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PDF 이미지 파일에서의 OCR 결과는 새로운 텍스트 추출 프로세스(Text Extraction Process)로 인해 업그레이드 버전에서의 정확도가 4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PDF 파일을 PDF나 다른 파일 포맷으로 다시 저장하기 전에 파인리더를 이용해 PDF 파일 열기, 편집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웹 출판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PDF 출력을 "리니어라이즈(Linearize)"시킬 수 있으며,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브라우저에 PDF의 첫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할 수 있다.

파인리더 7.0 코퍼레이트 에디션은 액티브 디렉토리(Active Directory),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매니지먼트 서버(Microsoft System Management Server), 또는 커맨드 라인(Command Line) 컨트롤을 이용하는 서버투워크스테이션(Server-to-Workstation) 설치를 관리자가 실행하도록 하는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 인스톨레이션(Automated Network Installation) 기능을 활용해서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복사기(Networked Digital Copier)와 멀티 기능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단체와 부서에서 특정 네트워크나 FTP 서버의 폴더 보기에서 사용자가 PDF 파일을 자동으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세팅도 지원한다. 이전의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파인리더 7.0 코퍼레이트 에디션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 라이선싱(Concurrent Licensing)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엔 출시된 버전의 라이선스 매니저는 라이선스 지정, 사용률 감시, 신규 라이선스 추가 등을 더욱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이외에도 파인리더 7.0의 다른 향상된 기능으로는 워드 2003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기능 개선을 들 수 있다. 인식된 문서들은 이제 앞으로 사실상의 표준 파일 포맷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3 체계를 이용하는 네이티브(Native) XML 보내기를 할 수 있다.

콘텐츠 관리

문서 관리 부문에서 가치있는 리더십을 보이는 도큐쉐어(DocuShare)가 최근 도큐쉐어 3.1(DocuShare 3.1)로 업그레이드됐다. 이 제품을 개발사인 Xerox(www.xerox.com/docushare)는 대기업을 겨냥한 옵션형의 워크플로 및 협업 모듈을 추가시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도큐쉐어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DocuShare Enterprise Workflow)는 대출 승인, 입사 지원서 검토, 구매 주문 조회 등과 같은 복잡한 문서-중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능률화시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애드-온 컴포넌트다. Dralasoft의 워크플로어 엔진에 구축되는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 모듈은 이미 도큐쉐어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적인 문서 경로 지정 및 승인 기능들을 확장시킨다.

3.1 버전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옵션은 각종 프로젝트와 워크그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기반 협업 시스템인 도큐쉐어 인터랙트(DocuShare Interact)다. 이 제품은 팀 구성원들이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일정, 회의, 작업 목록, 블로그, 그리고 기타 단체 작업 등을 위한 공유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제품은 HTML 사용 경험이 전무한 사용자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러그인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기반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기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

도큐쉐어는 웹DAV를 활용해 콘텐츠 접속, 보안,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는 다계층(Multi-Tier) J2EE-기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윈도, 유닉스, 리눅스 OS(Operating System)와 호환되며, 우수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ODBC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이 제품 개발환경과 프로그래밍 툴 슈트는 맞춤화 및 통합 기능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가격은 100 시트 시스템의 경우 9,995달러에서 시작하며, 기존 사용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협업

PDF 포맷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PDF 파일을 편집, 업데이트, 또는 재사용할 수가 없다. 매사추세츠 피바디에 소재한 스캔소프트(ScanSoft)는 PDF 문서를 편집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다시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틸리티인 PDF 컨버터를 출시했다. 이 제품 가격은 49달러다.

이제 사용자들은 데스크톱에 PDF 컨버터를 추가시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윈도 익스플로러, 아웃룩, 인터넷 익스플로 내에서 PDF 파일 열기, 변환하기를 할 수 있다. PDF 컨버터는 오피스 98, 오피스 2000, 오피스 XP, 그리고 조만간 공급 예정인 MS 오피스 2003과 호환성을 지닌다.

회사측은 PDF 컨버터는 기업 사용자 겨냥, 정제돼 있는 파일(Dead-End Files)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낮은 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도비 아크로벳(Adobe Acrobat)의 전사차원에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어도비 리더의 제한된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크로벳의 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사용자는 PDF 컨버터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일반 PDF 문서(PDF 이미지는 제외)를 오피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기, 편집, 공유할 수 있는 워드 파일로 열어서, 변환할 수 있다. 대량 주문 구축 시에는 수량 할인도 가능하다.

Product Briefs

전문성 관리

검색 전문가라는 뉘앙스로 인식돼온 컨택 네트워크 2.0(Contact Network 2.0)은 회사의 종업원들 중 누가 회사 외부의 어떤 이를 알고 있는지 찾아 낼 수 있도록, 이메일 어드레스 북, 이력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이메일 트래픽 패턴을 검색하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을 개발한 보스턴에 위치한 컨택 네트워크(www.contactnetworkcorp.com)는 영업사원들이 이 제품을 이용해 잠재 고객과의 컨택 및 소개의 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교 학생들은 장래 고용업체의 근로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 구성원을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택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로터스 도미노(Lotus Domino), 마

이크로소프트 아웃룩(Microsoft Outlook), 익스체인지(Exchange)와 연동하며, 프라이버시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일례로 이 제품은 한 종업원이 특정 기업에 컨택 포인트를 지니고 있는 동료 작업자를 검색할 때, 소프트웨어는 검색한 동료 작업자에 대한 연락 정보를 간단히 출력한다. 동료 작업자들에게 소개나 접촉을 요청하는 것은 검색자 의지에 달렸다는 것.

종업원들은 시스템 전부의 옵트아웃(Opt Out), 특정 기업에 대한 검색 결과의 옵트아웃,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지만, 검색자는 익명의 접촉선에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컨택 네트워크 2.0의 일반 사용료는 매월 5,000달러 정도다.

(Copyright CMP Media LLC)

ECM, 멀티 채널 출판 '활성화' 시켜

캘리포니아 플레산톤에 소재한 도큐멘텀(Documentum, www.documentum.com)은 최근 자사의 ECM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슈트 5.2 버전에 전자 출판 기능을 추가시켜 엔터프라이즈 퍼블리싱 솔루션(Enterprise Publishing Solution)을 만들어 냈다. 이 시스템은 인쇄 출판, 웹사이트, 포털, 소형 디바이스를 비롯한 기타 배포 수단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 제공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퍼블리싱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o 익스프레스(Quark XPress) 같은 저작 툴이나 설계 툴 사용자가 도큐멘텀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오더링 인테그레이션 서비스(Authoring Integration Services)로 명명된 도큐멘텀 모듈이다; 이때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저장소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FTP 사이트 또는 웹DAV-지원 파일 트리와 유사하다.

새로운 퍼블리싱 솔루션의 기타 컴포넌트로는 콘텐츠 관리와 워크플로를 위한 콘텐츠 서버를 비롯한 기존의 모듈;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 같은 리치 미디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매니저; 워크그룹 사이의 협업을 위한 e룸; 그리고 자동 메타데이터 태깅(Metadata Tagging)과 텍소노미 맵핑(Taxonomy Mapping)을 지원하는 콘텐츠 인텔리전스가 있다.

퍼블리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은 작자, 아티스트, 디자이너, 카피 및 레이아웃 에디터가 다양한 포맷으로의 출판하기 위한 콘텐츠를 협업으로 계획, 생성, 토의, 모니터,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한다. 특히 퍼블리싱 프로젝트는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터, 어도비 인디자인, ≥o



익스프레스 같은 저작 및 편집 툴과 통합돼 콘텐츠 생성자, 소유자, 그리고 기업 사용자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툴을 이용하는 콘텐츠를 기고, 관리, 리뷰,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 워크플로는 콘텐츠가 확실하게 해당 리뷰 및 승인 프로세스를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이 솔루션에는 멀티 채널 콘텐츠 딜리버리(Multi-Channel Content Delivery)가 포함됐는데 이 기능은 인쇄, 웹 출판, 무선 배급을 위한 포맷 및 디스플레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자동으로 전환시킨다.

도큐멘텀에서 새롭게 버전업한 플랫폼 가격은 부서 단위 구축 시 15만 달러부터 시작한다.

TRANSFORM 172 October 2003